

보건계열학과와 비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의 구강위생지식 및 관리 실태

이 종 도, 신 두 만, 박 종 탁

대구보건대학교 치기공과, 임상병리과, 소방안전관리과

Oral Hygiene Knowledg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Care for the Students in the Public Health and non-Public Health Departments

Jong-Do Lee, Du-Man Shin, Jong-tack Park

Department of Dental Technology,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Department of Fire Safety Management, Daegu Health College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oral hygiene knowledge and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care for the students in the public health and non-public health Departments.

Methods: The survey sample consisted of 262 randomly selected students. 197 of them are public health-related students and 65 are non-public health-related students.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consisted of 4 items for general information, oral health status of 2 items, 5 items for Oral hygiene knowledge and actual condition of oral care of 5 items.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Crosstabs using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Win 19.0 statistics program.

Results: Regarding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there were 53.8% of first-year student, 26.0% of second-year student and 20.2% of third-year student among 52.3% of males and 47.7% of females.

The subjects received less than "100,000" won(13.0%), "100,000-190,000" won (5.0%), "200,000-290,000" won(30.9%), "300,000-390,000" won (33.2%) and more than "400,000" won(17.9%) a month for an allowance. The subjects had 'none' (44.3%), '1'(6.5%), '2'(12.6%), '3'(5.0%), '4'(5.3%), 'more than 5'(0.8%) of dental caries and 'do not know' were 25.6%. The numbers of dental prosthetics were 'no' (35.5%), '1'(13.7%), '2'(17.2%), '3'(10.3%), '4'(11.5%), and 'more than 5'(11.8%).

The public health students(84.8%) had a higher positive response rate than the non-public health students(66.2%). The public health students(80.2%) had a higher negative response rate than the non-public health students(78.5%) in the result of onset of gum disease pain awareness. The non-public health students(65.5%) had a higher negative response rate than the public health students(68.3%) in the result of heredity of gum disease.

The t-test showed that 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students(M=8.264, SD=0.821) had more knowledge about oral hygiene than non-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students(M=8.015, SD=1.082).

'do not use' in the oral care products except toothpaste and toothbrush showed that 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students(60.4%) use the products more than non-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students(66.2%).

교신저자	성명	이 종 도	전화	053-320-1459	E-mail	lee9700@dhc.ac.kr	
	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산7번지 대구보건대학 치기공과					
접수일	2012. 11. 1		수정일	2012. 12. 21		확정일	2012. 12. 21

Conclusion: In this study, 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students had higher oral hygiene knowledge and actual condition of oral care compared to non-public health-related students, but low in practical action. Due to the lower level of dental care products use in non-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a continuous oral care education program is required.

●Key words : Oral hygiene knowledge, oral care, oral care education program

I. 서 론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구강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보건의료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의 지식을 비교분석하여 구강위생지식 및 관리 실태를 향상시켜 구강질환의 예방을 하고자 한다.

대학 시기는 사회생활의 준비기간으로 사회생활의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에 형성된 성격, 인생관 및 가치관은 장년기 이후 활동의 기반이 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구강건강상태 및 구강보건진료형태는 향후의 구강보건진료형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학생의 사회적 책무는 일차적으로 학업수행이며, 이들의 구강건강은 학업수행을 원활히 하고 건강한 신체와 심리적인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이홍수, 2001).

이처럼 구강보건관리에 있어서 대학생들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특수성을 지니므로 구강보건을 위한 관리 및 예방문제가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왔다. 대학생의 경우 우리나라 인구특성상 큰 집단이며, 구강진료이용의 구강보건형태가 유년기나 소년기의 경험은 물론 청년기의 경험과 통합되어 있으며, 추후의 구강보건형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어 대학생의 구강보건형태분석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바 있다(정기천 외, 2003).

사회적·정신적·신체적 성인기 건강한 사람의 기반이 되는 대학생시절에 정착된 건강습관은, 무관심과 부주의한 태도를 갖기 쉬워 스스로의 건강을 자신하며, 성인 중기나 후기에 비해 건강행위의 수정 필요성이 큰 시기이다.

현재 대학생 대상의 구강보건사업이나 교육 사업이 미흡한 실정이며 청년기에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리가 필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 시기의 구강보건 행태가 삶의 구강보건 행태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대학생들의 구강보건 행태 분석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김수진, 2011).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구강검진, 구강건강 및 개인별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윤경규 외, 1993), 구강보건지식, 잇솔질 횟수와 시간, 잇솔질 시기,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등이 구강보건 관리 실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하였다(배지영, 2002).

대학생들의 구강보건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강보건 실태를 파악하고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한 행동 양상을 가질 수 있도록 구강보건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송설경, 2004).

대학생은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역군으로서, 이 시기는 인생의 가치관을 더욱 정교하게 확립하고 고도의 지식을 습득하며 미래의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기간이라 할 수 있다. 보건대학 학생들은 졸업 후 보건관련 직종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일반인과 차별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구강보건형태가 자신은 물론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의 구강보건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일반 대학생보다 구강보건 형태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정수하, 2006).

이에 본 연구는 보건계열학과와 비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 형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구지역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구강위생 지식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구강관리에 관한 구강보건교육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임의로 선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보건계열학과 및 비보건계열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280명을 2012년 8월1일부터 10월1일까지 우편발송 및 직접배부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설문지 중 27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중 답변이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262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노세인(2009)이 사용한 도구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4문항, 구강건강 상태 2문항, 구강보건 지식 5문항, 구강보건 관리 실태 5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조사 수집된 설문지는 응답 방법에 오류가 있거나 무응답 항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262부의 자료를 코딩하여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사용된 구체적인 실증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계열학과에 따라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 및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 수준 $p < 0.05$ 에서 검증하였으며, 통계처리는 SPSS 19.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별 분포

이 조사의 설문에 응답한 일반적 특성별 조사대상자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137명(52.3%), '여성' 이 125명(47.7%)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141명(53.8%), '2학년' 68명(26.0%), '3학년' 53명(20.2%)이고, 주거형태별로는 '자

택' 114명(43.5%), '자취' 128명(48.9%), '하숙(기숙사)' 11명(4.2%), '친척집' 6명(2.3%), '기타' 3명(1.1%)이고, 용돈별로는 '10만원 이하' 34명(13.0%), '10-19만원' 13명(5.0%), '20-29만원' 81명(30.9%), '30-39만원' 87명(33.2%), '40만원 이상' 47명(17.9%)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Person(%)
Gender	Male	137(52.3)
	Female	125(47.7)
Year	1	141(53.8)
	2	68(26.0)
	3	53(20.2)
Housing type	House	114(43.5)
	Off-campus housing	128(48.9)
	Dormitory	11(4.2)
	Relative's home	6(2.3)
	Etc	3(1.1)
Allowance	> 10	34(13.0)
	10-19	13(5.0)
	20-29	81(30.9)
	30-39	87(33.2)
	40 ≤	47(17.9)
Total		262(100.0)

2. 조사대상자들의 치아우식증 개수 및 치아보철개수

조사대상자들의 치아우식증 개수 및 치아보철 개수 결과를 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치아우식증 개수 및 치과보철물 개수를 보면 치아우식증 개수별로는 '없다' 116명(44.3%), '1개' 17명(6.5%), '2개' 33명(12.6%), '3개' 13명(5.0%), '4개' 14명(5.3%), '5개 이상' 2명(0.8%), '모른다' 가 67명(25.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철개수별로는 '없다' 93명(35.5%), '1개' 36명(13.7%), '2개' 45명(17.2%), '3개' 27명(10.3%), '4개' 30명(11.5%), '5개 이상' 31명(11.8%)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ntal caries and dental prosthesis

Characteristics		Person(%)
dental caries	None	116(44.3)
	1	17(6.5)
	2	33(12.6)
	3	13(5.0)
	4	14(5.3)
	5≤	2(0.8)
	Unknown	67(25.6)
Number of dental prosthetics	None	93(35.5)
	1	36(13.7)
	2	45(17.2)
	3	27(10.3)
	4	30(11.5)
	5 ≤	31(11.8)
Total		262(100.0)

3. 조사대상자들의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 정도

조사대상자의 구강위생 지식 정도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식사 후 껌 섭취 뒤 칫솔질 효과 유무에서 '유'에서 보건계열학과 93.9%, 비보건계열학과 89.2%로 보건계열학과가 비보건계열학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 유무에서도 '유'에서 보건계열학과 90.4%, 비보건계열학과 67.7%로 보건계열학과가 비보건계열학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불소함유 치약 충치 예방효과 유무 중 '유'에서 보건계열학과 84.8%, 비보건계열학과 66.2%로 보건계열학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잇몸 질환 발생 초기 통증 자각 유무 중 '무'에서 보건계열학과 80.2%, 비보건계열학과 78.5%로 보건계열학과가 높게 나타났다.

잇몸 질환의 유전 여부에 대한 유무 중 '무'에서 보건계열학과 65.5%, 비보건계열학과 78.5%로 비보건계열학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3. Oral hygiene knowledge

Characteristics		Public health Departments(%)	non-Public health Departments(%)
Effect of chewing gum before teeth brushing after meal	Yes	185(93.9)	58(89.2)
	No	12(6.1)	7(10.8)
Preventive effect of fluorine	Yes	178(90.4)	44(67.7)
	No	19(9.6)	21(32.3)
Effect of toothpaste contained fluorine for prevention of teeth decay	Yes	167(84.8)	43(66.2)
	No	30(15.2)	22(33.8)
The onset of gum disease pain awareness	Yes	39(19.8)	14(21.5)
	No	158(80.2)	51(78.5)
Heridity of gum-disease	Yes	69(35.0)	14(21.5)
	No	128(65.0)	51(78.5)
Total		197(100.0)	65(100.0)

4. 조사대상자들의 구강위생 관리실태

연구대상자의 구강위생관리 실태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칫솔질 할 때 닦는 부분으로는 '치아와 혀만 닦는다'가 113명(43.1%)로 가장 높았고 '치아와 혀와 잇몸 모두를

닦는다'가 101명(38.5%), '치아와 잇몸까지 닦는다'가 22명(8.4%), '치아만 닦는다'가 15명(5.7%), '일정하게 정하여 닦지 않는다'가 11명(4.3%)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루 칫솔질 횟수로는 '3번' 124명(47.3%)가 가장 높았고 '2번' 113명(43.1%), '4번 이상' 17명(6.5%), '1번' 4명

(1.5%), '바쁘면 한 번도 닦지 않는다' 4명(1.5%)순으로 나타났다.

칫솔질 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으로 닦는 것이다' 208명(79.4%)가 가장 높았고 '적합한 치약과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다' 28명(10.7%), '자주 닦는 것이다' 20명(7.6%), '오래 닦는 것이다' 6명(2.3%)순으로 나타났다.

스켈링 경험 횟수로는 '전혀 해 본적이 없다' 122명

(46.6%)으로 가장 높았고 '1번' 65명(24.8%), '2번 이상' 52명(19.8%), '정기적으로 한다' 21명(8.0%), '기타' 2명(0.8%)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약과 칫솔 이외에 사용하는 구강환경관리용품으로는 '사용하지 않음' 162명(61.8%)으로 가장 높았고 '치실' 40명(15.3%), '구강세정액' 33명(12.6%), '치간칫솔' 22명(8.4%), '전동칫솔' 5명(1.9%)순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care

	Characteristics	Person(%)
Teeth brushing area	Teeth	15(5.7)
	Teeth and gum	22(8.4)
	Teeth and tongue	113(43.1)
	Teeth, gum and tongue	101(38.5)
	Irregularity	11(4.3)
Number of daily teeth brushing	1	4(1.5)
	2	113(43.1)
	3	124(47.3)
	4≤	17(6.5)
	none	4(1.5)
The most important part of brushing teeth	A choice of tooth brush and dental paste	28(10.7)
	Brushing for a long time	6(2.3)
	Brushing for many times	20(7.6)
	Correct tooth brushing	208(79.4)
Scaling experience	None	122(46.6)
	1	65(24.8)
	2≤	52(19.8)
	Regular scaling	21(8.0)
	Etc	2(0.8)
Dental care products	Dental floss	40(15.3)
	Oral cleanig fluid	33(12.6)
	Interdental brush	22(8.4)
	Electric toothbrush	5(1.9)
	None	162(61.8)
	Total	262(100.0)

5. 조사대상자들의 학과계열에 따른 구강위생 지식

본 연구대상 중 보건계열학과 학생은 197명(75.2%), 비보건계열학과 65명(24.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계열학과에 따른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계열학과에 따른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보건계열 학생(M=8.264, SD=0.821)이 비보건계열 학생(M=8.015, SD=1.082)보다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Oral hygiene knowledge

Characteristics	N	M±SD	t	p
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197	8,264±0.821	1,946	0,053
Non-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65	8,015±1.082		

*P<0.05, N=262

6. 조사대상자들의 학과계열에 따른 구강위생 관리실태

조사대상자의 학과계열과 구강위생 관리실태의 관계는 <Table 6>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칫솔질 할 때 닦는 부분 중 ‘치아, 잇몸, 혀 모두를 닦는다’에서 보건계열학과는 39.1%, 비보건계열학과는 36.9%로 칫솔질 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올바른 칫솔질’에서 보건계열학과 81.2%, 비보건계열학과 73.8%로 보

건계열학과가 비보건계열학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스켈링 경험 중 ‘정기적 실시’에서도 보건계열학과 8.1%, 비보건계열학과 7.7%로 보건계열학과가 높게 나타났다. 칫솔과 치약 외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 중 ‘사용하지 않음’에서 보건계열학과 60.4%, 비보건계열학과 66.2%로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이 칫솔과 치약 외의 구강관리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The actual condition of oral care according to the department

Characteristics	Person(%)	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Non-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x ² (df)	p
Tooth brushing area	teeth	15(5.7)	13(6.6)	2(3.1)	2,485 (4) 0.647
	Teeth and gum	22(8.4)	15(7.6)	7(10.8)	
	Teeth and tongue	113(43.1)	85(43.1)	28(43.1)	
	Teeth, gum and tongue	101(38.5)	77(39.1)	24(36.9)	
	Irregularity	11(4.2)	7(3.6)	4(6.2)	
Number of daily teeth brushing	1	4(1.5)	4(2.0)	0(0.0)	5,561 (4) 0.234
	2	113(43.1)	88(44.7)	25(38.5)	
	3	124(47.3)	93(47.2)	31(47.7)	
	4≤	17(6.5)	10(5.1)	7(10.8)	
	None	4(1.5)	2(1.0)	2(3.1)	
The most important part of brushing teeth	An appropriate choice of tooth brush and dental paste	28(10.7)	20(10.2)	8(12.3)	3,234 (3) 0.357
	Brushing for a long time	6(2.3)	5(2.5)	1(1.5)	
	Brushing for many times	20(7.6)	12(6.1)	8(12.3)	
	Correct tooth brushing	208(79.4)	160(81.2)	48(73.8)	

Characteristics		Person(%)	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Non-Public health-related department(%)	χ^2 (df)	P
Scaling experience	None	122(46.6)	90(45.7)	32(49.2)	5.651 (4)	0.227
	1	65(24.8)	55(27.9)	10(15.4)		
	2≤	52(19.8)	35(17.8)	17(26.2)		
	Regular scaling	21(8.0)	16(8.1)	5(7.7)		
	Etc	2(0.8)	1(0.5)	1(1.5)		
Dental care products	Dental floss	40(15.3)	34(17.3)	6(9.2)	8.868 (4)	0.064
	Oral cleanig fluid	33(12.6)	28(14.2)	5(7.7)		
	Interdental brush	22(8.4)	14(7.1)	8(12.3)		
	Electric toothbrush	5(1.9)	2(1.0)	3(4.6)		
None		162(61.8)	119(60.4)	43(66.2)		
Total(N)		262	197	65		

*P(0.05, N=262)

IV. 고 찰

본 연구에서 보건계열학과와 비보건계열학과 대학생들의 구강관리실태를 할 수 있도록 비교분석하여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과 구강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국민 구강건강관리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구강위생지식정도를 보면 식사 후 껌 섭취 뒤 칫솔질 효과 유무에서 '유'에서 보건계열학과 93.9%, 비보건계열학과 89.2%로 보건계열학도가 비보건계열학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불소의 충치 예방 효과 유무에서도 '유'에서 보건계열학과 90.4%, 비보건계열학과 67.7%로 보건계열학도가 비보건계열학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양학적 방법에는 Phosphated diet가 있으며 기계적인 방법은 치면 세마, 칫솔질, 구강청정, 치실사용, 치면열구 전삭, 껌, Detergent food 등이 있다(Shafer & Lery, 1974)는 연구와도 비슷하다.

불소함유 치약 충치 예방효과 유무 중 '유'에서 보건계열학과 84.8%, 비보건계열학과 66.2%로 보건계열학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잇몸 질환 발생 초기 통증 자각 유무 중 '무'에서 보건계열학과 80.2%, 비보건계열학과 78.5%로 보건계열학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잇몸 질환의 유전 여부에 대한 유무 중 '무'에서 보건계열학과 65.5%, 비보건계열학과 68.3%로 비보건계열학과

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구강건강행위가 자녀의 구강건강행위 즉 칫솔질 횟수, 예방 목적의 치과방문과의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우승현, 2000).

또한, 조명숙(1996)의 연구에서는 치주건강을 위한 중요 사항에서 올바른 칫솔질 방법이 53.1%로 가장 높았고 치과에서 정기적 검진이 29.0%, 적합한 치약과 칫솔 선택이 9.9%, 단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가 8.0%이고, 치주 질환과 치아우식증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설탕섭취제한, 구강건강의 중요성 교육실시, 정기적 치과방문 실천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다(강명신, 1994).

치주질환은 초기에는 환자 자신이 전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어 환자가 증상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병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되어 치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게 되므로 치주질환의 원인과 질병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서조영, 1998), 민간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의 노력이 1999년 구강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국가차원의 보건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후 평가하는 국가보건사업의 수행추세에 발맞추어 구강보건분야도 2010년까지 달성할 국가구강보건정책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구강질환의 원인 및 예방에 관해 정확한 지식을 숙지하

여 진료대상자 및 일반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구강건강에 관한 태도 및 실천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가도록 변화시킬 책임이 있으며(정재연, 1995), 구강보건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자나 일반인 대상으로 좋은 구강위생관리 행위의 역할 모델이 되어야하며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의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 및 실태를 파악하고 비보건계열학과와 비교 체계적인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보건계열학과와 비보건계열학과 대학생의 대조군이 비슷한 인원수로 구성되어 설문하여 나타낸 것이 아니라 보건계열학과가 75%로 월등히 많아 자료의 분산도를 더 높이지 못한 점이 남아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보건계열학과와 비보건계열학과의 확대된 구강보건인식 형태를 규명하고 대학생들의 구강위생 지식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국민 구강건강 실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 결 론

본 연구는 보건계열학과와 비보건계열학과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구강위생지식 및 관리실태를 조사한 대상자는 262명으로 보건계열학과의 학생 197명과 비보건계열학과 65명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특성 4문항, 구강건강상태 2문항, 구강보건 지식 5문항, 구강보건 관리실태 5문항 등 총 16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t-test,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실증 분석은 모두 유의 수준에서 검증 하여($p < 0.05$), 통계처리는 SPSS 19.0 versio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자’ 52.3%, ‘여자’가 47.7%, 학년별로는 ‘1학년’이 53.8%, ‘2학년’이 26.0%, ‘3학년’이 20.2%이고, 용돈별로는 ‘10만원 이하’가 13.0%, ‘10-19만원’이 5.0%, ‘20-29만원’이 30.9%, ‘30-39만원’이 33.2%, ‘40만원 이상’이 17.9%로 나타났다.

2. 조사 대상자의 치아 우식증 개수 및 치과보철물 개수

를 보면 치아우식증 개수별로는 ‘없다’가 44.3%, ‘1개’가 6.5%, ‘2개’가 12.6%, ‘3개’가 5.0%, ‘4개’가 5.3%, ‘5개 이상’은 0.8%, ‘모른다’가 25.6%이었다. 그리고 보철개수별로는 ‘없다’가 35.5%, ‘1개’가 13.7%, ‘2개’가 17.2%, ‘3개’가 10.3%, ‘4개’가 11.5%, ‘5개 이상’은 11.8%로 나타났다

3. 불소함유 치약 충치 예방효과 유무 중 ‘유’에서 보건계열학과(84.8%), 비보건계열학과(66.2%)로 보건계열학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잇몸 질환 발생 초기 통증 자각 유무 중 ‘무’에서 보건계열학과(80.2%), 비보건계열학과(78.5%)로 보건계열학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잇몸 질환의 유전 여부에 대한 유무 중 ‘무’에서 보건계열학과(65.5%), 비보건계열학과(78.5%)로 비보건계열학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4. 조사대상자의 계열학과에 따른 구강위생에 관한 지식을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한 결과 보건계열 학생($M=8.264$, $SD=0.821$)이 비보건계열 학생($M=8.015$, $SD=1.082$)보다 구강위생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칫솔과 치약 외 사용하는 구강관리용품 중 ‘사용하지 않음’에서 보건계열학과(60.4%), 비보건계열학과(66.2%)로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이 비보건계열학과 학생들보다 칫솔과 치약 외의 구강관리용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비보건계열학과에 비해 보건계열 학과의 학생들이 구강관리 실태 및 지식정도는 높았으나 실질적인 실천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구강용품의 사용도가 비보건계열에서 많이 나타나 앞으로 지속적인 구강관리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 Kang MS, Kim JY, Kim HG, Kim BI. Influence of self-perception, attitude, behavior and knowledge about oral health on caries experience and periodontal treatment need. Yonsei University masters thesis, 1994.
- Kim SJ. A study of Oral Health recognition and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Jeonbuk.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environmental .masters thesis of public health), 2011.
- Sea_in Roh. Recognition for the health of the mouth and behaviors on some of university students. Deagu Haany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masters thesis, 2009.
- Ji_young Bae. A Study on the Factors Effecting the Oral Health Concern and Oral Health Care. Yeungnam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 public Health studies. masters thesis of public health, 2002.
- Seo JY. The clinical diagnosis of periodontal disease.
- Song SG. The Journal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37(3), p. 18, 1998.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oral health in Korean college students.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environmental masters thesis of public health, 2004.
- Woo SH. (The) Relations of Mothers' Knowledge of and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with Their Children' Attitudes towards Oral Health.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masters thesis, 2000.
- Yoon GG, Choi GR, Kim JR. A Study on the Oral Health Knowledge and Attitudes of Elementary School Nursing Teachers in Pusa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10 (2), 32-38, 1993.
- Lee HS, Yoon YM, Lee JS, Kim SN. Restricted activity with oral disease in a Korean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5(3), 245-258, 2001.
- Jeong GC, Lee HS, Kim SN. A Study on the Dental Services Utilization by Application of the Andersen Model in Students of Some Korean University.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health, 25(3), 357-373, 2003.
- Su_ha Jeong. Health college Student's Dental Health Behaviors. Wonkw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environmental .masters thesis of public health, 2006.
- Jeong JY. Knowledge · attitude and practices about dental caries prevention among oral hygienists in Korea. Chung_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masters thesis, 1995.
- Myung_sook Cho. Knowledge · attitude and practices about dental caries prevention among oral hygienists in Korea. Vol.2, No.1-2, 1996.
- Shafer. Hein, Lery Oral Pathology 3rd Education. pp. 366-430, 1974.